



는 屋蓋의 厚 五—六 cm, 柱너長 下層五六 cm 上層四—五 cm 屋身의 厚 五—七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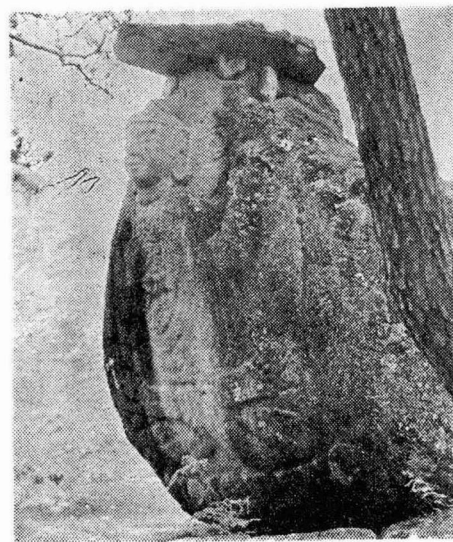
〔附〕六角蓮花臺石(厚 八 cm 一邊長 二六 cm)一座가 塔頂에 設혀 있다. 十二瓣의 覆蓮이 彫刻되고 그 中心部에는 一〇 cm x 一七 cm의 長方形孔이 貫通되었는데 用途는 未詳이나 豊麗한 蓮瓣手法과 同石質로 보아 同代의 것으로 보인다.

二、磨崖如來座像(寫眞下)

靑石塔 西南八 m 에는 巨大한 花崗石의 東側을 平坦하게 다듬고 坐佛一軀를 浮彫하였다. 七瓣의 仰蓮圓座에 結跏趺座한 高約 三·五 m의 巨佛로서 各瓣內에는 四葉紋을 裝飾하였다. (蓮花의 一瓣幅約 三五 cm 蓮花座의 全幅約 三·五 cm) 右手는 胸前에 들어서 內掌하였고 左手는 옆으로 들어 外掌하였는데 그 兩腕의 彫法이 부드럽다. 圓刻에 가까운 頭部는 큰 便이며 素髮인데 肉髻는 低小하다. 眉間에는 白毫가 있으며 兩耳는 목에 까지 길게 늘어졌고 三道가 있다. 두 볼은 豊滿하여서 微笑를 지은 口唇과 잘 調和되어 慈悲스럽다. 頭光은 圓形으로 重瓣花紋이 둘러 있는데 瓣內에는 花紋을 彫飾한 듯 하다. 身光은 뚜렷하지 않으나 頭光左右에서 二線을 派出시켜 兩膝上에 까지 내렸으나 別다른 紋樣

다. (各層 十二字씩으로 글자는 各異하다) 相輪部는 全失되었고 最上層屋蓋上面에 直徑 六·五 cm의 圓孔(깊이 四五 cm)이 있다. 年代는 各部手法의 優雅함에서 高麗에 流行된 靑石塔의 秀作으로서 初期의 遺構로 推定되었다. 實測值

은 없다. 通肩의 衣文은 두팔을 거쳐 兩무릎을 덮었으며 胸前에는 袈裟의 結帶가 보인다. 兩膝을 덮은 衣文과 뚜렷이 들어나 보이는 두발바닥의 彫刻은 形式에 흐르고 稚拙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頭頂의 岩上에는 洞民에 依하여 「갓」模樣으로 自然石을 올려 놓았다. 豊美한 相好와 上半身의 衣文으로 미루어 보아 羅末麗初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以上의 塔像은 往來가 많은 亭子屋外에 放置되어 있는 바 특히 佛像은 右側面이 絕壁을 이루고 있어 當局의 保護策을 要望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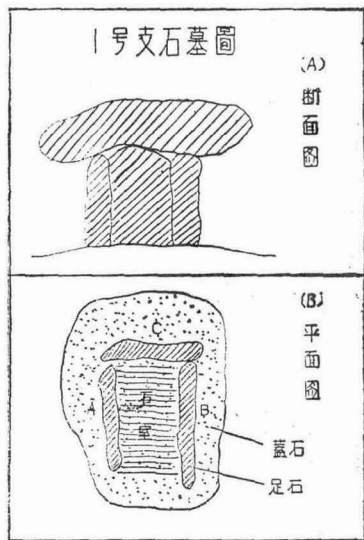
◎ 코스 Ⅱ 堤川 一三 km 徒步 酒泉面 四 km 徒步 水周面 武陵里 二 km 徒步 遼僊亭

龍仁 慕賢面 支石墓

金 武 龍

昨年 三月 四日에 龍仁郡 慕賢面 旺山里에 갈 機會가 있었다. 이 곳 支石墓는 慕賢國民學校 敎師였던 俞慕烈氏가 發見한 것으로서 解放後에 金元龍博士가 調査한 일이다. ①

그 位置는 旺山國民學校 東便約 二百 m 地點의 田中에 있으며 東과 西에 各各 一基씩의 北方式支石墓가 存在한다. 우선 完存한 支石墓(西)



를 一號 그 東窄 約 六m의 足石이 넘어진 支石墓를 二號 또 그 東쪽에 支石墓의 蓋石같은 것이 있음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이들 三號) 一號의 蓋石은 大略 不定長方形狀이며 長 五·三m 幅 四

· 一m 厚 九〇cm 全高는 二·三m 가량이 矣. 東쪽 것을 A 足石, 西쪽 것을 B 足石, 中間 것을 C 足石이라고 하면 (A) 足石 高 一·四m, 廣 二·六m (B) 足石 高 一·二五m 廣 二·八m 兩 足石 間 거리 즉 (C) 足石 廣 約 九五cm로 西北間을 向하였으며 入口엔 雜石들이 쌓여 있었다. 石室 長 二·六m 廣 一m 高 一·三m 이고 石質은 花崗石이다. 二號는 不定形 蓋石으로서 그 長 四·二m 幅 三·八m 厚 八五cm 足石은 二個인데 하나는 너머져 있고 하나는 埋沒되었다. 坐向은 一號보다 約 三十度쯤 西쪽으로 기울어졌고 足石狀態는 不明하다. 또 一號같이 雜石들이 足石部分에 많이 積重되어 있다. 三號는 大略 長方形狀 蓋石으로 長 二·五m 幅 一·三m 厚 六五cm이며 足石은 埋沒되어 그 殘部 若干만 露出되어 있어서 그 狀態를 알 수 없다. 이 亦是 雜石이 散在해 있었다. 이 所在地는 漢江上流인 京安川畔인 點으로 보아 漢江流域 支石墓群에 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附記해 들 것은 解放後 廣州中學校에서 이 支石墓附近에서 磨製石鏃를 採集 保管하고 있다고 하는 데 支石墓內에서 發見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龍仁郡엔 이 以外에 駒城面 上下里(上下支石里)에도 一基의 北方式 支石墓가 있으며 ③ 또 龍仁面 金良場里에도 있다고 한다. ④ 또 器與面書院里에도 있다. ⑤ 慕賢國民學校의 支石墓에선 石鏃이 採集되었다. ⑥

註 ①, ⑤, ⑥ 金元龍 編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參照

② 當時 廣川中學校教師였던 姜正熙氏 談

③ 全吉姬 『龍仁郡 駒城面 所在 Dolmen 調査報告』

④ 岡田 『京城府史』(上卷) P. 二五 參照

安城 石南寺 銅鐘

李 永 樂

京畿道 安城郡 瑞雲面 石南寺 大雄殿에 萬曆八年(宣祖十三年 一五八〇年) 銘 梵鐘一口가 있다. 頂上部에는 如意珠를 문 雙龍이 잇바귀어 雙

頭單身形의 龍鈕을 이루고 左右側에는 鑄造에 起因한 隋圓形(偶八方形)의 突部가 달려 있으나 右側은 缺아낸 듯하다. 立狀蓮花紋이 鐘肩帶上

에 돌려 있으나 一部 破損되었고 肩帶에는 唐草花葉文을 돌렸다. 肩帶

에 붙여서 乳廓을 四區로 나누고 各 九個씩의 花瓣形鐘乳를 配置하였으

며 乳廓 周緣에는 蓮珠文內에 花葉文을 새겼다. 鐘身에는 削髮形坐像二

軀와 銘文을 二處에 새겼으며 鐘復에는 四條의 大線을 돌렸다. 高麗 梵

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肩帶上的 立狀蓮花文樣式이 壬亂直前의 이 鐘에

서 指摘됨은 注目할

만하다. 鐘乳의 突

起는 退化하였고 鐘

身에 새겨진 坐像二

軀中其一은 길게 뻗

친 錫杖을 右手에 쥐

었고 左手에는 念珠

를 들었으며 他一은

右手에 寶瓶, 左手에

는 念珠를 들고 있

는데 法衣의 彫線은

